

とでも退屈しなかったことは和歌山に住んでいながら会った周りの人々のおかげであつて、みんなにすごく感謝したいと思っている。いつかは私がもらって感じた温かさを、他の人にも伝えたい。

# ‘와카야마 라이프’

오수경

일본어·일본문화 연수유학생 한국

나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일본어/일본문화 연수유학생’으로서 와카야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2016년 9월 27일,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큰 백팩을 짊어지고 간사이 공항에 도착해, 학교로부터 받은 가이드를 보며 ‘와카야마대학앞역’에 도착한 것이 바로 어제의 일 같은데 그것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이번 작문공쿨의 주제가 ‘유학생이 본 와카야마’라 유학생으로써 나의 와카야마의 생활에 대해 써 보고자 한다.

나는 현재 와카야마 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에스티 월드 레지던스’라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두명의 일본인 룸메이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명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 있어서, 또 다른 한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둘이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와카야마에 오기 전까지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의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후에도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에 와카야마에 오기 전까지 한번도 가족의 곁을 떠나서 생활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와카야마에서의 1년은 일본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집에서 독립해 생활할 기회이기도 하여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기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오던 첫날이 아직도 선명히 눈앞에 떠오른다.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 방에서 ‘제미(ゼミ)’의 과제를 하고 있었던 룸메이트가 내 짐을 받아 주면서 방을 안내해 주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방이었기 때문에 처음 방을 봤을 때는 왠지 허전한 방이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얼굴도 모르는 나를 위해 깨끗하게 청소해 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일본인의 환영(おもてなし)’이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 짐을 방에 두고 나자 룸메이트가 주방, 거실, 화장실, 샤워실 등 집안 곳곳에 대해 알려주었다. 집의 여기저기에 있던 인형들과 잡지, 주방의 조미료들과 같은 생활 용품들로 인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생활감(生活感)’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덕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가 긴장의 날이었던 당시, 귀가 후 언제나 ‘집’이라는 안정감이 느껴져 곧 마음이 가라앉곤 했다.

와카야마는 바람이 세니까 빨래를 널 때는 빨래 집게로 고정시킬 것, 싱크대 배수구에는 미리미리 망을 씌워 둘 것, 페트병을 버릴 때에는 붙어있던 상표 비닐을 떼어낼 것 등등, 지금은 익숙해져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게 된 것들이 당시에는 모두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고, 또 ‘일본인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잘 써주는구나’라고도 생각했다.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과 함께 사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되기도 했을 텐데, 내가 일본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뭐든지 친절하게 가르쳐 준 룸메이트들 덕분에 지금까지도 와카야마 생활의 첫인상은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와카야마에 오고 나서 한달 간은 주변 모든 것들이 도전이자 모험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와카야마의 버스였다. 와카야마의 버스노선표는 외국인인 나에게 있어서 특히 더 알아보기 힘들었다. ‘와카야마대학앞역’으로 가려고 탔는데 ‘JR 와카야마역’에 도착하기도 했고, ‘와카야마대학앞역’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잘못 타 도중에 내렸는데 이미 버스가 끊겨 버리기도 했고, 제대로 내렸는데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아니었기도 했고... 이렇게 헤맸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까지 무사히 잘 지내 온 것은 내가 곤란에 처할 때마다 지역 주민 분들이 도와 주셨기 때문이다. 길에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모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자신도 모르는 길이라면 또다른 사람에게 같이 물어봐 주셨고, 밤늦은 시간에는 직접 택시를 불러주시기도 하였다.

내가 와카야마의 지역 분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은 것은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얼굴을 한 멋진 외교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4 개월이 흐른 후에는 더이상 길도 해매지 않게 되었고 생활에도 어느정도 적응해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생겼다. 특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집에서 가까운 이온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가는 것이다. 처음 1~2 개월간은 일본에 여행 온 기분으로 자주 식당이나 카페에 갔지만, 이런 식으로 1 년을 지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이후 엄마에게 레시피를 물어가며 스스로 요리를 해보면서 장보러 가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에 가면 이곳 와카야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를 알 수 있어 재미있다. 이곳 슈퍼마켓에는 소위 말하는 ‘건강식품’이 많아서 일본이 왜 장수국가인가를 알 수 있을 거 같다. 예를 들면, 큰 냉장고 한 칸이 전부 여러 종류의 두부로 채워져 있고 그 맞은편 냉장고에는 낫토(納豆)랑 매실장아찌(梅干し)가 있으며 새빨간 토마토도 항상 맛있어 보이게 나란히 정열되어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종류별, 부위별, 또 조리방법 별로 여러 종류의 고기와 생선들도 있고, 신선하고 많은 종류의 야채랑 과일을 조금씩 살 수도 있어 장보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특히 나는 와카야마에 오기 전까지 ‘미깡(ミカン)’, ‘퐁깡(ポンカン)’, ‘이요깡(イヨカン)’, ‘깡깡(キンカン)’ 등 이렇게 많은 ‘~깡(カン)’들을 본적이 없었다. 또, ‘데코퐁(デコポン)’, ‘핫사쿠(はっさく)’, ‘하루미(はるみ)’, ‘세토카(せとか)’ 등 ‘~깡(カン)’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과일들도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었다. 하루는 그것들의 맛이 궁금해 전부 하나씩 산 적이 있는데, 집에 돌아가 봉지를 열었더니 뭐가 뭔지 구별이 안가 결국 각각이 무슨 맛 인지는 아직도 모른다.

작문콩쿨을 위한 글을 쓰기 위해 1 년 전 사진부터 꺼내어 다시 찬찬히 보았다. 와카야마의 조용한 버스 분위기, 5 시를 알리며 마을에 울려 퍼지는 알람 소리, 시청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보이는 와카야마 성, 이온 슈퍼의 화요일 세일 노래 등, 아직 2 개월 이상이나 남아있건만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것 같다. 나고 자란 고향 대구에서 떨어져 와카야마에 살아 보면서 느낀 점은 ‘다른 점들도 많고 그만큼 같은 점들도 많다’는 것이다. 다른 점들도 같은 점들도 뭐든지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달라도 무섭지 않고 같아도 지루하지 않았던 것은 와카야마에서 살면서 만난 사람들 덕분이라 생각한다.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언젠가는 여기서 받고 느낀 따뜻함을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